

양축가의 입장에서 본 1. 21 사료가격인상

양축가 위한 후속조치필요

박 충 희

(경기도 안양시 평촌리)
(부로일러 10,000수규모)

사료값이 인상되리라는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나 막상 농수산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 그 인상폭이 예상 외로 너무큰데 놀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대두박 값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제조경비가 오른것등은 이해가 있지만 이렇게 너무많이 한번에 올리니 양축가 입장에서 앞으로 양계하기가 점점어려워 지지 않나 생각 됩니다.

사료값이 올라 이제는 계란하나 40원, 부로 이려는 800원 정도 받아야 생계가 겨우 유지될것 같은데 언제 이만한 가격을 받게 될지 현재로는 막막합니다.

사료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런 때 양축가를 위해 인상폭을 적게할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마리당 수익이 적어지므로 규모를 확장하여야 하는데 앞는데 몇년동안은 규모를 확장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읍니다.

정부에서는 양축가의 이러한 어려운 입장 을 생각하셔서 세제상의 혜택, 축산물의 수입금지등 특별 후속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 같은 영세 양계인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제가 속해있는 협회 안양분회에서는 원영운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들이 1월28일 이러한 양축가들의 어려움을 관계요로에 전달하려고 서울 농수산부에 갔읍니다.

정부에서 양축가를 위한 후속조치가 있기 를 바랍니다.

계란수급과 가격의 악순환 우려

김 용 태

(서울·경기지역 양계협동조합)
총무부장

농수산부가 이번 배합사료가격을 28.3% 인상 조정하였는데 양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가나 그폭이 너무 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채란양계업의 경우 특란 1개에 최하38원을 을 받아도 겨우 유지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2월10일경 되는 35원 정도는 될듯하나 이상은그 약간 어려울것 같읍니다.

채란 양계가 38원 계란값을 하여도 어려움니 어쩔 수 없이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원중 설사 38원까지 간다고 하여도 신문에서 나오는대로 석유류 값이 인상될 경우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때문에 계란 생산비로 또 오를것 같읍니다. 다른 물가가 모두 오르면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전망은 어두워집니다. 도

최근 사료가격 인상후 산란계 초생추가 기왕에 예약된 것도 취소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사료가격 인상 쇼크와 채란양계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계

앞으로 계란가격의 밝은 전망없이 공급의 부족=가격폭등=과잉생산=가격폭락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 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